

해외건설산업의 중장기 활성화 방안

IMF 구제 금융 신청의 여파로 한국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외건설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지난 1996년의 수주 실적은 107억 달러로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50억 달러 수주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수주 증대의 이면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 주력 시장이 중동에서 동남아로 이전되었을 뿐 여전히 시장 다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설계 등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이나 정보 수집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 가뜩이나 취약한 금융 조달 능력은 동남아 시장의 외환 위기에 이은 우리나라의 IMF 구제 금융 신청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수주 실적은 1980년대 초반의 호황기와 비슷하지만,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은 해외 건설시장의 발주 및 수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해외건설업체들이 안고 있는 취약점 때문일 것이다.

해외건설은 이제 또 다시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장기적인 해외 건설시장의 전망에 기초해 해외건설산업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점검해보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해외건설산업의 중장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가 해외건설업계의 경영 전략 및 정부의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외환 위기의 해결책으로 해외건설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해외 건설시장의 전망을 토대로 해외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기적인 수주 목표와 산업 위상을 확립한 다음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와 세부 실천 전략을 마련하였다.